국제 농업 정보: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2-2026 농업·농촌 전략[1)]

■ 농무부는 농업·농촌의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 영역적으로 5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함. 이는 과학, 연구, 기술, 데이터, 농무부의 능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농무부의 6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함.

- **(① 기후스마트 농업, 임업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과 임업의 회복력 강화, 농지의 건강 회복, 생산성 강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후변화 위험 대응과 기회를 통합하고자 함.

- **(② 인종 간 정의, 공정, 기회의 개선)**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무부 직원뿐 아니라 소외된 정책 대상자들에게 장벽을 없애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③ 대내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좋은 시장 구축)** 코로나19 이후 식품 시스템의 취약성이 발견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장들은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고자 함.

- **(④ 식량과 영양 불안을 해결하고 식량안보 강화)** 식품과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 농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농무부의 영양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⑤ 미국 농무부를 모두에게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모든 부서에서 건강하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농무부 또한 직원들이 존중받고, 믿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개선해나가고자 함.

1) 미국 농무부의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22-2026"(2021.11.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이러한 5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전략을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이후 농업시스템 개선, 식량안보 강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 등을 달성하고자 함.

| 2022-2026 농업·농촌 전략의 6가지 목표 |

순번	목표	세부목표
1	농지, 자원, 공동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후스마트 농업 관리와 농지의 건강 및 생산성 강화
		농업과 임업의 기후변화 결과 적응
		유역의 복원, 보호, 보존을 통해 수자원의 풍족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보
		탄소격리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적 기회 창출
2	공정하고, 회복성 있고, 풍족한 농업시스템 확보	주요 질병, 병해충, 인간-야생 간 갈등(Wildlife conflicts)의 최소화를 통한 식물과 동물의 건강 보호
		회복력 있는 식품시스템, 인프라, 공급 사슬 구축
		농업 혁신 육성
3	모든 농업 생산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육성	혁신 촉진,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신기술, 지속가능한 제품 등을 위한 시장 확대
		협상, 무역협정 등을 통한 농업 생산자들의 세계 시장 참여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마케팅 기회와 수요 확대
4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식품 지원 및 영양과 적절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데이터 기반, 유연한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 유도
		식품 매개 질병 방지와 공중위생 보호
5	경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에 확대	인터넷 연결성, 공동체 시설, 지속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상하수도 등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의 인프라 개선
		적절한 주거 접근성을 통한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의 능력, 지속가능성, 경제적 활력 증대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여 환경적 정의 실천을 강화
6	미국 농무부 인력에 대한 확보 및 동기부여	인권, 다양성, 공정, 포용, 접근성, 투명성 등의 강화
		고객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력 있는 직원
		더 나은 기술과 공유된 방식으로 농무부 업무 능력 강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5.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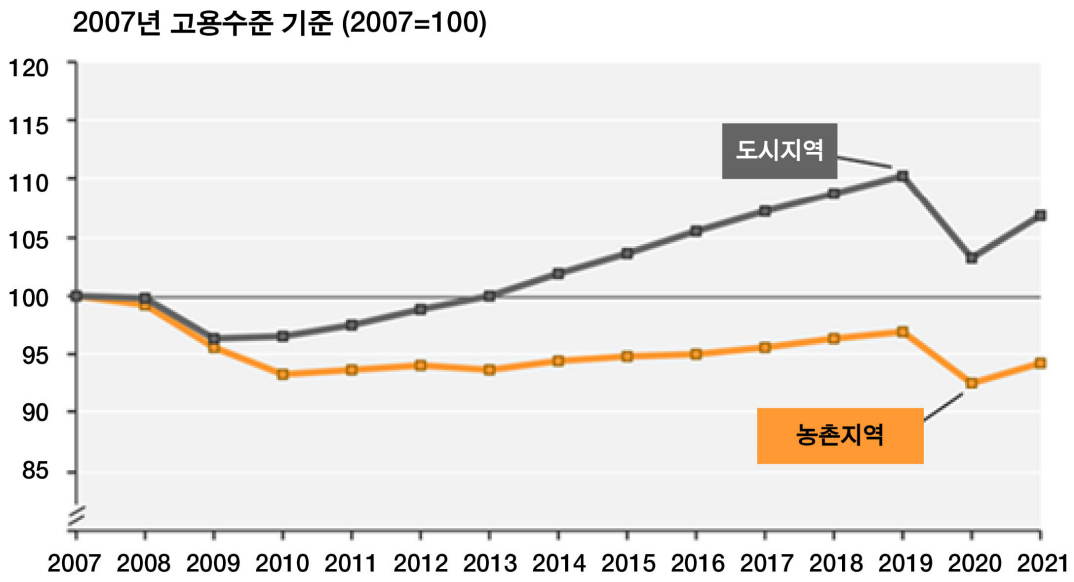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미국

2 경제위기와 농촌·도시 고용 비교[2)]

■ 국제경제 위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변화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2007~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2010~2019년의 회복기, 2020~2021년의 코로나19 위기 때의 도시 지역(urban)과 농촌 지역(rural)의 고용 감소와 회복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농촌에서는 140만 개의 일자리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사라졌으나 이후에 일자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07년 경제위기 이전 대비 97% 수준까지 회복됨. 반면 도시의 고용은 2007년 이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농촌 인구의 감소가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처음으로 발생한 상황과 연관되며, 농촌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 회복이 비교적 완만해짐.

| 지역별 고용수준(2007-2021) |



자료: USDA ERS(2022)

■ 세계금융위기 이후 농촌 지역의 노동 고령화가 더욱 심화됨.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 지역 2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참여는 도시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감소함.

2) 미국 농무부경제조사국의 "Rural Employment and Unemployment"(2022.4.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ers.usda.gov/).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농촌 내 2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6% 감소하였으나 도시는 0.7%만 감소함. 이는 농촌에서 세계금융위기로부터의 고용 회복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농촌 노동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함.

- 2007년에 비해 2019년에 농촌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 및 고용 탐색은 증가함. 이는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가 부족한 저축, 건강보험의 부족 등을 겪고 있어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함. 하지만 농촌에 65세 이상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2007년과 2019년의 핵심 노동연령[3] 실업률은 도시는 3.9%에서 3.0%로 감소하였고, 농촌은 3.9%에서 3.7%로 감소하여 이 기간동안 농촌에서의 핵심 노동연령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도시 거주자들이 원격근로에 대한 적응에 유리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첫 번째 해인 2020년에 농촌에서는 16세~24세의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2021년에는 농촌 16~24세 인구의 고용률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25세~64세, 65세 이상 그룹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감소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도시 지역에서 모든 연령대에서의 고용이 농촌보다 더 많이 감소함. 이는 도시의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 등 비필수 인력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사회적 거리두기 발생으로 인해 소비자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에 핵심 노동연령의 실업률이 도시 지역에서는 7.3%로 증가하였고, 농촌에서는 5.9%로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로로 전환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자, 빠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적응할 수 있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5.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핵심 노동연령은 25세~54세를 말함.